

제주4·3 수형인 70년만에 재심... “감격”

수형인 18명·도민연대 도민의 방 기자회견
“절실히 환영... 4·3해결 획기적 전기될 것”
도내 4·3단체·정치권도 일제히 “결정 환영”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70년이란 세월을 건너 온 고통의 무게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

제주4·3 수형인생존자 18명과 가족, 제주4·3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다음 날인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불법군사재판으로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은 4·3해결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고 2530명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4·3수형인 18명에 대한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생존자는 양근방(86)씨

등 18명에 이른다.

같은 날 도내 4·3단체·기관들도 일제히 보도자료와 성명 등을 내고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 수형인들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며 어렵게 성사된 재심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그간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4·3 수형인생존자 18명과 가족, 제주4·3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4일 도의회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위법하게 이뤄진 군법회의 재판 절차와 내용을 무효화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제주4·3연구소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70년 전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수형생활을 하거나 수형생활을 하다 희생된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사법부의 결정에 반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

귀포시)은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한 억울한 희생을 해왔던 제주4·3 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곳곳이 재판에 임하신 당사자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재판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제주대학교 4차 산업혁명
교육로드쇼 오는 7일 개최

제주대가 7일 대학 해양과학대 4호관 오션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변화’의 주제로 교육로드쇼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제주대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KIRD’)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미래사회 변화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로드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강연하고 나면 모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이뤄진다.

1세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대한 강이다. 김영욱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장이 ‘사람을 이해하는 IoT’,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가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법’에 대해 강연한다. 2세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 산업, 문화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배워보는 자리로, 문경주 과학탐험가가 ‘변혁의 시대, 잡는 호기심을 깨워라!’,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자기혁신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백금탁기자

학교앞 흡연금지 구역 지정만 하면 뭐하나

도 조례 따라 학교 절대보호구역 308곳 지정
흡연 현장 적발 어려워 과태료 부과는 한계

올해 5월부터 학교 앞 50m 이내가 흡연금지 구역으로 설정,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학교 앞 흡연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학교 절대보호구역(유치원 118, 초등학교 112, 중학교 45, 고등학교 30, 특수학교 3)은 모두 308개소로 지난달부터는 흡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발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3일 서귀포시 모 중학교 정문 앞에선 10분도 안 된 사이에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학교에는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게시판도 부착돼 있었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웠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교 주변에 금연 안내 게시판을 부착하고, 정기적인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인 줄 모르거나 금연 구역임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흡연



서귀포시 지역 모 중학교 앞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들이 일부 있다”며 “흡연 현장을 적발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단속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흥준기자

진사향이 안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청렴도 목표인 ‘청(聽)·청(淸)·청(靑)의 약속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확대

도교육청 2019학년도 고입전형 세부계획 확정
정원 총 6600명 중 평준화지역 7학급 403명 ↑

내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정원이 늘어났다. 학급당 학생수를 확대 조정하며 총 7학급 403명이 증가했다. 올해 고1 신입생에 비해 급증한 현재 제주시 동지역 중 3학생들을 수용하고 학생·학부모들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제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계획’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을 확정, 4일 공고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총 6600명. 올해 입학정원 6315명에 비해 285명 늘었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는 올해 대비 7학급 403명 증가한 86학급 3010명이 편성됐다. 제주시고, 제주중앙여고, 제주여고가 2학급씩 증가했으

며 오현고는 1학급 증가했다. 교사수급 및 시설의 한계로 학급을 더 늘리는 대신 학급당 정원을 올해 33명보다 2명 늘려 35명으로 확대 조정했다.

지난 4월 1일 기준 내년 고1 신입생(현재 도내 중 3) 수는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316명 늘어난 4649명이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각 59명씩 감소했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정원은 25~30명(올해 25~31명)으로 73학급 1911명, 특성화고의 학급당 정원은 23~26명(올해 24~26명)으로 59학급 1419명이 편성됐다. 특수목적고(특수목적학과 포함)는 11학급 260명으로 올해와 같다.

한편 2019학년도는 전기·후기교로 나눠 학생을 선발하며 전기 모집은 1개 학교만 지원이 허용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토지 5345필지 공시지가 열람

제주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지목변경, 분할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 5345필지로 지목변경 1089필지, 분할 3759필지, 합병 487필지, 신규 1, 기타 9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10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기자

6일 제주대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제주대가 6일 대학 체육관에서 도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2018 청년취업 일자리박람회 잡-아라 페스티벌(JOB-ARA FESTIVAL)’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주대가 주최하고 제주대 LINC+사업단, 제주대 소신 총학생회, 제주대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 제주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취업박람회에는 도내·외 공기업은 물론 항공사, 은행, 대기업, IT, Bio, 에너지, 관광 등 34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채용상담 및 현장채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실전면접을 경험하는 자기소개 콘테스트,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 성공취업을 할 수 있는 면접 메이

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품 추첨 및 이벤트도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드론버스 =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재+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주중반
주말반
수시반

교육장소 : 유수알리 운동장

064-746-7277 (24h 상담)

“입학에서 졸업, 취업까지”

기초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국립제주대학교

2019 제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 수시 신입생 모집**
접수 기간 : 2018. 9. 10. (월) ~ 9. 14. (금) 17:00까지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시 신입생 모집**
접수 기간 : 2018. 10. 1 (월) 09:00 ~ 10. 5 (금) 18:00까지
-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정시 신입생 모집**
접수 기간 : 2018. 10. 30 (화) 09:00 ~ 11. 1 (목) 17:00까지
- 인터넷 접수**
(주)유웨이애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문의 : 064-754-3990~5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